

1989 6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교회학교 유치부)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 8200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한 예언서이다. 오늘날 학자들이 나훔이 예언을 했을법한 엘고스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나훔’이라는 말은 긍휼, 자비 혹은 위로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요청되고 자비가 요청되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이 주는 뜻을 깊이 새겨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예언에는 긍휼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니느웨는 500년 이상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한 서아시아를 지배했던 큰 성이다. 여러 세대를 거쳐 성을 거대하게 건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는 교만한 죄였다.

바벨론은 세속도시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죄목으로 지적되지만 니느웨 성은 인간의 폭력, 자기의 근육,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또 정복한 정복의 상징으로 이웃에 대항하는, 형제를 괴롭히는 도시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대항한 죄를 범했다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들을 괴롭히는 폭군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훔 선지자는 포로되어 있는 유다를 위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망을 안겨 준다. 유다가 비록 포로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 언제까지나 원수에게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나훔서의 메시지이다.

요나서와의 차이점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을 보여주고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엄위를 보여준다.

6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목사님과 김창인 목사님의 영력과 사역을 위하여
2. 교회의 전 일꾼들의 믿음과 헌신을 위하여
3. 시온성 대행진의 성공적인 행진을 위하여
4. 전교인 전도인 되기 위하여
5. 병원에 입원가료중인 형제들을 위하여
6.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7.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새벽 강단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라」(1:2)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든 그것을 숭배하고 그곳에 예배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명예, 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는 사람은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섬김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느느웨는 하나님 아난 것을 따라가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확실성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므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나 노하실 때는 큰 권능으로 하시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하지 않습니다. 회리바람, 광풍, 티끌이 등장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사람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이 혼돈 천지에 빠지게 될 것과 인생으로서는 접촉할 수 없는 높은 구름도 발의 티끌같이 낮다는 것입니다. 달세계와 같은 고공에 전쟁기지를 얻기 위해 우주 탐험을 경쟁하고 있는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따라 가다가 돈 떨어지는 날 실망할 것입니다. 자녀 너무 의지하다가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올까 염려됩니다. 당의 세력을 의지하다가 정권이 바뀌는 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에 우쭐대다가 신예들이 해성과 같이 나타날 때에 비참함을 맛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상 전투적이며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탁한 공기로 오염된 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대해서는 둔탁하며 죄에 대해서는 불감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우소서. 이종운 목사님의 건강을 불드시고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루는도다」(1 : 4)

보복하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의 또 한가지는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노켄’으로 2절에 세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교철학은 인과 응보사상을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사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주며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핵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는 말씀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행위를 말하며 인간의 보복행위처럼 공의와 사랑을 결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응답이 인간의 표현으로 보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3, 4대까지 심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만대에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3, 4대 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3, 4대 까지라는 말은 3대쯤 가서 계속 징벌을 받으면 씨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사상으로 우리의 허물에 별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사랑의 매인 것을 늘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물려 주는 길은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 : 무상송배자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채찍을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해외 사역과 국내 사역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1 : 7)

선하신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선하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박해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 줘야 되겠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끝을 내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의 산성 7 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로서 이 구절을 잘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행할 당시 가장 위로를 받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심판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일곱번이나 반복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유대의 위로가 완전할 것을 나타냅니다. '범람한 물'은 파사와 메대와 아라비아와 바벨론 군대가 홍수처럼 밀려와 니느웨를 쓸어버리는 군대의 침략을 말합니다. 500년 도읍지,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스러운 니느웨가 이 연합군대의 침범으로 인하여 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도시는 역사 위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8 절).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단번에 끝을 내십니다. 2-3 회 공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9 절). 마른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물로 쏘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흔적도 없어집니다(12 절). 오늘날 니느웨성의 역사적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몇조각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역사상에 암흑 속으로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고 끝을 보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그 품안에 피난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을 만끽할 것입니다.**

기도 심판과 위로는 극과 극입니다. 어느 끝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와 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6일부터 시작되는 시온성 대행진에 온 교우가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1 : 14)

후계자 불계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은 후계자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 후계자가 없습니다. 있다해도 3대를 못갑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쭐거리며 나오다가 다음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박태선, 문선명도 얼마나 알려진지 모릅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비루함'은 무가치하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치 못한 니느웨, 500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덤이나 예비하고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진멸당한 후에 다시는 동행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복음 불찌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습니다(사40 : 9). 앗수르의 멸망소식은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어 그들이 다시는 유다 가운데로 통행치 못하게 되었으니 더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앗수르의 압제를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대한 종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찬란하던 앗수르 수도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처치를 받으니 잔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폭군적인 자세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후손대대로 믿는자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후계가 없으면 우리는 이단일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가치한 생을 가꾸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되어서도 안되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려할 별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유다서 1 : 12-13).

기도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같이 정함이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리를 튼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행위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옵소서. 모래부터 시작되는 시온성 대행진에 복을 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종윤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크게 굳게 할찌어다」(2 : 1)

니느웨성의 정복 소선지를 공부하는 가운데 나훔서 2장 본문은 문학적으로 아름다우며 시적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은 소름이 끼칠만큼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니느웨성이 망한다고 하는 넓은 뜻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이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니느웨성이 어떻게 망할 것을 보여 줍니다. 니느웨를 심판하는 여러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위로, 신앙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힘대로 하라 '산업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하라'는 말씀은 네가 해볼 때까지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힘과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한계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도 선수, 레스링 선수가 굉장한 것 같고 인간의 힘이 위대한 것 같으나 어느 점에 가서는 한계상황에 부딪힙니다. 니느웨성의 죄는 형제들을 약탈하고 괴롭힌 죄인데 '너희가 아무리 내 백성을 괴롭힌다 해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광을 찾아주려 한다. 너희가 망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살려 주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는 성경전체의 흐름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종종하고 있지만 실제 위험중에 빠지면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도 안하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낙심에 빠집니다. 죽을병이 들어 살 소망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병원 순례하기에 급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장의 차이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말은 결국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식을 취하나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 평시에는 잘 믿는 것같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잠재의식까지라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시온성 대행진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화) 불가항력

찬송 197 성경, 나 2 : 1 - 7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2 : 5)

적의 위력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왕이 앗수르를 공격하기 위하여 니느웨로 올라올 것을 말합니다.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의 옷도 붉습니다. 그들의 붉은 빛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기계 노릇을 하는 데 불과합니다. 병거의 철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적의 위엄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성벽 외곽에 적의 병거들로 가득히 에워쌌습니다. 거리에는 적의 병거가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으니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적의 위협에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정 없고 인력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승산없는 전쟁 앗수르 왕은 모든 정예병을 동원하였으나 바벨론 군대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달리기는 달리나 겁약하여 앞드러 질 듯이 달려갑니다. 그들이 방어전을 예비하기는 하나 승산이 없습니다. 방어, 도망, 다해 봐도 강둑이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졌는데 무얼 더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수문은 열렸고 왕궁은 소멸되었으며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는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니 회복할 수 없는 비극이요 참상입니다.

** 아기를 업고 가다가 바람에 돌이 날아오면 아기로 막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식 사랑한대도 재목숨이 더 중한 것입니다. 이 목숨 부지해 불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해 보나 하나님의 원군 앞에는 수문이 열리듯이 생명이 녹아나고 수치와 비루만 연출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 노송나무 창과 같이 대단한 위엄으로 임하시는 주의 진노앞에 초개같은 인생되자 말게 하시고 승복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현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2 : 13)

한정적 생명 ‘물이 모인 못’ 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많이 모여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뿔뿔이 헤어집니다. 서서 도성을 수호하라고 외쳐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 생명을 위하여 저들은 재산과 집을 기꺼이 버립니다. 내세의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니느웨는 금은보화로 휘황찬란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속문화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은 타국에서 노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노략하라, 늑탈하라’ 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앗수르가 늑탈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될 것이 명백합니다. 신자들은 앗수르가 망함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앗수르는 고대의 강국이었고 군대는 모두 용사였으나 마음이 녹아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비겁하여 졌으며 무력하게 되고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 ※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재물을 구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같고, 몸을 단련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것같고, 지혜를 훈련시켜 지식을 쌓는 것같고, 세상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명예를 높이며 자기 위치를 높이는 것같고, 쾌락을 따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같이 느끼나 그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어두움의 특징은 혼란입니다. 사탄이 가는 곳에 혼란이 오며 빛이 있는 곳에 질서와 조화가 생깁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말도 생활도 질서가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 상에서만 와야됩니다. 저주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 세상의 한정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적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상에서만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안개와 같은 세상것에 심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폭력이 영원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3 : 1)

강포와 포학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 했습니다(19 절).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니느웨의 포학과 잔인함이 어떠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니느웨가 망한 네가지 죄는 2 - 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지 죄 폭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휘둘러 피흘린 사람들을 가리켜 피의 성이라 했습니다. 거리의 폭력, 정신적, 경제적, 성폭력 등 수많은 종류의 폭력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 속이는 죄입니다. 사람이 남을 속이려면 자신을 먼저 속여야 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까지 속여야 됩니다. • 누탈죄입니다. 니느웨는 생산이 없는 소비도시로서 순전히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해서 연락을 꾀했던 것입니다(2 : 9). 니느웨 사람들은 도적질 선수였습니다. • 마술과 음행죄입니다.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마술로 모든 나라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니느웨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편에서는 망할 것만 하게 된 것입니다.

*** 평소에 덕을 끼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안타까와 하고 위로를 해 주지만 평소에 악을 행한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좋아라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와 해 주겠는가 생각해 보고 평소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폭력데모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속임을 당하기가 쉽지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두번 속이다가 양심이 마비됩니다. 무위도식하는자는 아닙니까.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는 기다리면서 계속 노력할 것이거니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시간에 대한 절도도 됩니다.

기도 항상 악을 도모하여 형제의 빈축을 사는 일은 꿈에도 없게 하시고 노력하여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철의 장막도 무너지고 죽의 장막도 무너졌사오니 북한에 잃은 동포 하루 빨리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3 : 5)

끊어진 소망 니느웨의 죄악은 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은 결국 피흘리는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미워하시므로 니느웨의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피할 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끊어집니다.

숨은 죄악 니느웨는 처녀가 강간을 당하듯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치마를 걷어서 얼굴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숨은 죄악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앗수르가 치마로 가리우듯이 가리우고 행하는 모든 술책을 탄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정복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섬기는 우상 앞에 깔리고 추태를 보여 아무런 위로도 없고 도움도 없이 망하고 맙니다. 그를 따르고 쫓고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요 힘입니다. 니느웨가 망한 이유는 죄값입니다. 이 죄값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피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된다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니느웨의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해서 남을 죽이는 폭력배가 되어서도 안되고 남을 속이거나 누탈해서도 안되고 음행을 행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죄중에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제 5 계명에서 10 계명까지 모두 가정에 대한 계명입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요 간음,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다 남의 가정을 파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 귀하고 중요하듯 이웃의 가정도 귀하고 중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내편이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소망이 없는 것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증되이 여기는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토) 비극적인 최후

찬송 271 성경, 나 3 : 8 - 19

「너는 베기를 늦의 먹는 것 같이 하리라」 (3 : 15)

노아몬의 최후 노아몬과 니느웨의 공통점은 강을 끼고 도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요새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교만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몬은 티베스(테베)를 말하는데 이 나라는 구스(에디오피아), 애굽, 붓(리비아), 루빔의 지원을 받아 위세를 떨치고 경제적, 군사적 부를 지키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몬도 일찌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였고 그를 돕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에디오피아등 아프리카 북쪽 지방들은 하루에도 500명 이상이 아사되고 있습니다. 노아몬의 파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마다에서 메어침을 당했고 지도자들은 제비뽑혀 여러나라로 나뉘어갔고 왕족들은 결박되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니느웨의 최후 니느웨의 심판도 노아몬의 전례를 보아서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정들은 여인처럼 겁약하게 되고 아무리 방어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13절).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14절) 라는 말씀은 원수에게 포위당하면 음료수를 얻을 길이 없으니 미리 물을 길어 준비해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니느웨는 수효가 늦과 메뚜기 같이 많아도 다 없어지기를 곡초가 늦이 먹어 없어지듯하게 됩니다(15절). 니느웨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는 회복될 수 없으므로 아주 망하고 맙니다.

****** 우리는 사람의 수효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국가의 튼튼함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국가는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니느웨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복음과 회개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앞세웁시다.

기도 복음으로 하나되고 회개로 정결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서만수 선교사, 윤태곤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바다’의 뜻은 ‘여호와와 종’으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성경 가운데도 12명이 나타나고 있다. 오바다서의 기록시키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에돔의 죄와 이방인의 침입(11-14)의 기사를 보아 주전 850년 경이 아닌가 한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별명으로 팔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다. 에돔은 에서의 땅으로 세일이라고도 불렀다. 에돔은 성경에 여러가지 별명으로 알려지는데 구약 지도를 보면 유다의 마지막 남단과 요단을 향한 동편지역 사해 근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약 100마일 조금 넘을 정도의 땅이다. 에돔은 개간에 적당한 땅이지만 사람들은 버려진 곳으로 여기며 지금도 개간하지 않고 버려진 땅이다. 그럼에도 에돔은 매우 중요한 요새이다. 에돔의 두가지 중요한 점은 시리아와 애굽의 상업의 통로이며 그 지역의 중앙은 해발 5,000미터의 높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힘과 안전성이 높은 곳이다.

- 에돔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전적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호전적이다(창 27:40)

-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대하 25:14-20).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니까 가치관이 흔들린 사람들이다.

-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 저 말에 끌려가는 가장 불쌍한 자리에 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 이 에돔인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교만이다(렘 49:16).

-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다(겔 25:12). 형제 야곱족속에 게 원한을 품고 늘 복수심에 불타 분노에 차 있었다.

-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한 자들이었다(민 20:18).

- 공격적이다.

-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기뻐하던 사람들이다.

「네가 멀리 섰던 날」(1 : 1)

교만 에돔의 여러가지 죄악 중 오바다가 지적하고 있는 죄는 교만죄입니다 (3절). 현대인들은 교만하다는 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죄중의 죄입니다. 인류 역사가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 불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범죄했습니다.

형제 천대 오바다가 지적하는 에돔의 또 한가지의 죄는 형제성의 결여입니다. 이 죄도 역시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하다 보니 형제를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야곱과의 거룩한 형제의 의를 파괴시켰습니다(10절). 이 형제성을 깨친 죄는 살인, 간음, 속임, 자기를 사랑하는 죄와 함께 엄청난 잘못이며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이방의 침입을 받던 날 멀리 서서 구경만 하였습니다(11절). 방관과 무관심은 악에 대한 협력입니다. 방관과 무관심은 아무 행위도 안했지만 성경은 포악이라고 말합니다(10절). That's not my busines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Don't care 상관 없다 합니다. 형제성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방관만이 아니라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고 나옵니다(12절).

****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딤후 5 : 8). 친족을 돌아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성을 잃은 자입니다. 내 형제가 어떤자라도 격려하고 사랑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서양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족 때문에' 하면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국가의 일 때문에, 심지어 주의 일 때문에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의 실수를 비웃거나 기뻐해서는 안됩니다. 이보다 나쁜 것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중왕이지만 우리 같이 천한 인생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기도 이곳이 헐벗어도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내일 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애굽의 이준교 선교사님과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 파라과이의 김재창 선교사님, 안석렬 선교사님을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남미의 복음화가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1 : 16)

여호와와 날 지리적 안전을 구가하고 동맹군의 힘과 지혜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도 필요없고 형제에게 잔인하던 에돔은 교만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와 날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임합니다. 블레셋에도 에브라임에도 사마리아에도 베냐민과 길르앗과 사르밧과 스바랏과 같은 모든 지역(19-20)에 임합니다. 여호와와 날은 누구에게든지 오는데 비극은 여호와와 날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심판을 안받게 될 것이라고 자위하고 자만하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에게는 여호와와 날이 승리의 날이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겠는데 여호와와 날이 슬픔의 날,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고통의 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할 날이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앗수르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망하기 전날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임박한 날 ‘가까왔나니’ 가깝다는 말은 즉시 온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멀리 보이는 그 시간이 곧 닥쳐올지 모릅니다.

**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날이 오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언제든지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보든지 말든지 상급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그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임박한 여호와와 날을 기억하며 깨어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김주경 선교사님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좋은 치량도 구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1 : 21)

축복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온 오바다
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여호와
의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나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날이라고 예언합니다.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입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모여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국입
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원
한 구원을 말합니다.

토지와 심판 여호와의 날에는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리게 됩니
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토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했지만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국토입니다. 국
가 재산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49년동안 사용하도록 빌립니
다. 그리고 50년 때는 나라에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학자들이 토지신학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야곱족
속과 요셉족속은 불과 불꽃이 되어 에서 족속을 초개로 만들
어 버린다고 했으니 심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심판에 화염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본래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24보좌에 앉아 만국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땅에서부터 여호와의 기업(구원)을 누리고 영원
한 천국에서 만국을 호령할 날까지 이 기업을 놓치지 않고 완
성해 가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만 이 기업을 확
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상실하고 쫓겨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
셔서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산화된
모든 국가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토지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박국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철학적인 책이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많은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인생의 만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현대인의 질문이 이 책에 구체적으로 질문되어 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일으켜 그들이 승리케 하십니까.

어찌하여 불의가 선을 이기고 선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역사가운데 임재해야 하는가 왜 오늘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야만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2,5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이다. 주전 612년에 니느웨 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았고 주전 587년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박국이 이 책을 쓴 것 같다. 하박국서에는 4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1:2)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1:5-6)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2:3)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매여 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 까지리이까」(1 : 2)

하나님의 목적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2 절).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진행의 중심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국가가 흔들리고 교회가 평안할때 나라에 부강이 옵니다. 교회와 국운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권이 흔들리면 물권이 흔들립니다. 개인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온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5 - 6). 오늘 모든 땅위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소유주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섭리주도 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매여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His Story 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 전 세계를 통일시킬 줄 알았던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2차대전 후에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6.25가 일어났을 때 극적으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UN의 한국 참전 결정으로도 도움을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과 개인, 나라의 역사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나 재수라는 말은 배제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내 생애를 내가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던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선상에서 나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칠레의 유재일 선교사님과 가정을 붙들여 주시고 카톨릭의 교장 칠레가 기독교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1 : 13)

생각하라 유명한 주석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 꼭 생각해야 할 네 단계는 •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단할 것 • 기초적인 원리로 돌아갈 것 • 원리를 문제에 적용시킬 것 •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라. 먼저 문제에 부딪치면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약1 : 19). 말하는 것이 쉽고 필요하지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말이 급하면 실수가 오고 낭패가 옵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중단하고 생각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원리로 돌아가라 하박국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침공의 말씀을 듣고는 계속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글을 길게 쓴 사람도 아니면서도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라는 말은 아니나 글을 쓰기 전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생각이 기도로 기도가 생각으로 묵상과 기도가 연결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생각한 후에 곧 원리로 나아갑니다. 제 1 원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1 : 12-13).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제 1 원리입니다.

*** 베드로와 같이 선행동 후생각의 타입입니다.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로 부터는 경망한 사람이라는 빈축을 사기 쉽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잠깐만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후에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지금 문제가 급하다고 끝에서 해결하려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수학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듯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주셨고 인생의 법을 주셨는데 이 원리로 돌아가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기도 무슨 일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서사모아를 기억하시고 박행렬 선교사님 내외분을 불러 주옵소서. 서사모아의 가난도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2 : 1)

원리 적용 하박국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적용을 시켜 봅니다(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 분이데 어찌하여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어찌하여 우리로 심판을 당케 하십니까(14-15). ‘그가 그물을 떨구는 연하여 열국을 살륙함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의 질문속에는 이미 대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국을 살륙함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 속에는 대답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적용후의 기다림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의 원리에 적용시킨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2 : 11). 주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또한 믿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모르는척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로부터는 자신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문제의 반복과 연속속에서는 어려움을 면치 못합니다. 문제를 초월해서 멀리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 어떤 문제에서 초연하지 못하면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문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로 늘 직접 돌입하십니까. 옳지 못합니다. 간접적인 것으로부터 서서히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적용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물어보고 대답하고 적용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 문제 속에서 열키고 설켜 좌절해 버리고 마는 저희들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에서 초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해서 양무리들을 바로 지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2:3)

급한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대답은 임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크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 집니다. 교만해지고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향감각도 없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움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 집니다.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는 것은 급한 일이 생길 때에 말씀을 곧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운행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더딜찌라도 하나님은 정한 때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결코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고난의 때,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의 방법은 신뢰이고 인내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는 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인격, 노력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합2 : 4, 롬1 : 17, 갈3 : 11, 히10 : 38) 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참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 사람은 별 수 없이 먹은대로 뱉고 먹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신실하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회상도 하고 미래를 바라도 보고 신실한 약속을 믿는 근거를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충실히 참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시다.

기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행위를 도모하지만 일한 것도 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므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은혜의 찬송을 부르도록 저들의 삶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2 : 5, 8)

부정 축재자 화가 있어야 할 사람은 부정축재하는 사람입니다.

(6 - 8).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축재는 도적질이요 하나님의 질서에도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시고 재산을 정해주시고 그 외의 것은 거두어 가십니다. 부정축재는 또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며 빼앗고 사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도 위배됩니다. 강포를 행하니(8) 의의 사랑에도 혼동을 가져옵니다. 돈 벌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며 횡재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매점매석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경영학의 원리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 윤리로 볼때 모리배입니다. 상업에도 상도의와 상 윤리가 있습니다. 8 계명만 도적질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를 본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 화가 있어야 할 사람은 또한 불의한 사람입니다(9-10).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뺏은 물자를 가지고 집을 짓고 좋다고 하나 실상 그 건축 재료들이 착취한 죄악을 소리쳐 말하니 자연물이 죄악을 성토하도록 그 죄악이 사무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는 가정에도 욕을 부르고 자신의 영혼에도 화를 자초합니다.

** 고객을 속여서 지나치게 이를 얻고 고객의 뒤통수를 보며 하하 웃지만 하나님은 부정축재자의 정면을 향하여 노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이를 남겨 하나님께 헌금하기 보다 의로 상을 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딸로, 폭행으로 타인을 죽이는 불의도 행치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죽을 때 내 영혼과 내 육체에도 하나님의 화가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맙시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핑계로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가족에게 화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의를 지킵시다.

기도 너무 부하여 부정을 사랑케도 알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불의를 행치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옥에서 곤고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새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2 : 18)

피흘린 죄 • 화가 있어야 할 사람은 또 폭력을 행하는 자입니다(12-14). 피흘린 죄가 폭력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요즈음의 폭력은 피를 흘리는 체형뿐 아니라 경제폭력, 성폭력, 정치적인 인권 폭력 등 갖가지 폭력이 다 있습니다. 경제폭력은 돈으로 사람의 목을 꼭 죄는 것입니다.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물고 읍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그의 동생의 피를 흘린 자입니다.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다. • 화가 있어야 할 사람은 타인을 범죄케 한 자입니다(15-17). 죄를 지으면 혼자나 짓지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죄를 짓게 했으니 죄값은 배로 받습다. 조용히 있는 사람 할퀴어 그 사람으로 분노케 하고 살인케 하고 죄짓게 조정하는 사람은 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 • 화 있어야 할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18-20).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고 헛된 우상에 달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18) 우상은 생명이 없으며(19) 산사람이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금과 은으로 입힌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자 우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 속이고 불의하고 빼앗고 땀흘리지 않고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일이 내게,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교회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우상숭배로 떨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데 막힐 것이 없습니다. 먼저 찾을 것을 먼저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항상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며 자고하거나 좌절하거나 비열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충헌교회는 세계가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 (화) 접근하는 기도

찬송 233 성경, 합 2 : 20 - 3 : 1, 2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흥케 하옵소서」(3 : 2)

유구무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천하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 밖에 없습니다(2 : 20). 이유와 변명과 고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므로 성전의 상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개념이 더 신약적이고 성경적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기도를 드립니다(1-2).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효과적인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씨름꾼이 엎어치기로 넘기듯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설득형이 있습니다. 교만에 가득차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경외함으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외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감격하고 산천, 꽃, 풀한포기를 보고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자기 말로 자기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옵소서 아닙니다.

****** 미국에 두 아들을 교통 사고로 잃고 아내를 화재로 잃고 한꺼번에 아내와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여, 당신은 이 시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원망할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불충을 용서하시고 두려움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천천교회는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게 하고 세계를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3 : 3)

예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예배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경건한 예배의 심정이 없이는 기도의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병든 것, 필요한 것, 가려운 것, 쓰디 쓴 것, 어느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Acts (사도행전)의 순서로 하면 좋습니다. Adoration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찬양하는 기도, confession 참회의 기도, Thanksgiving 감사의 예물입니다. 생활로 감사해야 합니다. Supplication 구체적인 간구입니다. 간구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말하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와 동화심이나 정하심에 따라 땅이 진동하며 열국이 전율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 못할리 없습니다.

**** 주의 긍휼을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년내에 이루게 해달라고, 자신의 가정과 민족 사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충현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사마니즘 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기도, 복을 달라고 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 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착종교가 사마니즘을 믿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은연히 기복신앙이 국민 감정에, 교회안에 성도의 심령 속에도 깔려 있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날마다 달라고만 하던 기도의 수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이까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옵소서. 중공에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사 사마니즘이나 물량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3 : 18)

하나님께 대한 지식 기독교 강요 1 권 1 장 첫절은 하나님 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칼빈 선생의 방대한 책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박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3-6).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7-8).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별도 다 멈추게 하시는 우주를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10-11). 열국을 밟으시고 원수를 찌르신 자이십니다(12-15).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3).

여호와를 힘으로 하박국은 그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농작물과 가축이 없어도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돈을 기뻐하지 않고 명예를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 즐거움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는 승리합니다(19). 안전한 요새를 힘으로 삼지 않고 무기를 힘으로 삼지 않고 군대를 믿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설교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부처나 잡신을 섬기듯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생활 속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건강 재능을 힘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읍시다.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기도 철벽과 같은 어두움이 밀려올 때도 낙심치 않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공산 무신론 사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주의도 배격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11: 4)

복습 호세아의 전장의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앞에 굴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호세아의 또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3 장에서는 비행으로 인해 노예로 떨어진 고멜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4-10장은 고멜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주시지만 연단을 통해서 결국 심판에 대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11-1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보여 줍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랑의 정도도 질도 차원도 다릅니다.

사랑받은 자 이스라엘의 과거는 복받은 과거였습니다(11: 1-4).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부모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듯이 팔로 안아주고 걸음마를 시켜주고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들의 반응은 무반응이요 오히려 배신하고 감사치 않고 점점 멀어졌습니다(11: 5-7). 이같은 무지는 그들의 모든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자를 몰라보는 배은망덕이요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를 몰라보는 우매한 것입니다.

※※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자식사랑이 아무리 훌륭해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기심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 노년이 편안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하여 재목으로 가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자녀도 재물도 몸도 마음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항상 나만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받은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11: 8)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배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대신에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9).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11: 8 상). 이 구절은 호세아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신 그 신부를, 여러 세기 동안 돌보신 그 백성을 비록 범죄했어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그렇게 금슬이 좋다가도 이혼으로 끝장을 내고 맙니다. 그러나 놓지 않는 이것이 곧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샘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당어리 아들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더욱 연민에 불붙듯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로 불붙습니다(8 하).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스헛인데 이 말은 자비, 사랑이 불붙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루터 포드는 ‘오, 그리스도, 주는 깊고도 달콤한 사랑의 샘일새’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을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여 남은 자들이 애굽에서, 앗수르에서부터 재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나아올 것입니다.

*** * 호세아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을 암송합시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시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돌아옵시다. 사업실패, 질병, 재난 이 모든 것은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10).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불붙는 심령을 묵상해 봅시다. 내 심령도 불붙을 것입니다.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까.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합시다.**

기도. 열번 잘못 했어도 한 번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죄악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항상 밝히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12: 1 상)

공허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망한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멸망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12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에브라임은 어떤 자였습니까. 위선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에워쌌던 자였습니다. '바람'은 공허한 것을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기는 먹는데 건강에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헛배만 부릅니다. '동풍'은 팔레스틴의 동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열풍으로 건조하고 뜨겁고 황량한 바람입니다. 앗수르를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헛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 앗수르와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 세력과 다른 세력을 맞붙어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 방법은 정치게임에서 항상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공통점 유다도 북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향한 태도가 인간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여 왔습니다. 유다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갱신하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칭호로써 세상의 모든 무가치한 신들로부터 구별시켜 주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대한 조상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웃에게는 인애와 공의를 다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무를 다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 오늘도 위선과 속임수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마 위에 올려진 물고기가 소망이 없다면 심판대 위에 선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집니다.

기도 눈이 정결하시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남을 속이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이 격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12: 4)

기독교 역사관 유대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이 온다고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철학은 한마디로 원입니다. 돌고 돌아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있고 마친 이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사랑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님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뒤통수를 친다는 말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곧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성품을 말합니다. 뒷발꿈치를 잡는 것은 넘어뜨리는 것밖에 도와주는 일이 못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도 다투고 천사와 씨름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형도 속이고 오늘 말로 일등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사기에 능숙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비행이 용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한없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 항상 우리의 끝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야곱의 성품을 버립시다.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을 옷입읍시다. 사기극을 벌이다가 죄인으로 낙착되지 말고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미천한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 내게 남을 속이고 간사한 성품이 많을지라도 선택하셨기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지혜도 주옵소서. 어두워진 사회에 한줄기 감렬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13:1)

죄의 위력 롬 6:23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는 개인을 망하게 함과 동시에 가정과 문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까지 소멸시키고 그 결과 국가까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예가 호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팅글러가「서구의 몰락」이라 하는 책에서 인류역사가 마지막에는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을 예언했습니다. 서양의 문명을 연구해보고 인류역사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네단계를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사람의 죄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과 쇠퇴는 죄의 결과인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명의 구원도 역사의 구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스팅글러가 바울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영육의 사망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자기를 높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육신이 먼저 죽지를 않고 영혼이 먼저 죽었습니다. 인류가 망하는 것이 늙어지면 쇠퇴하는 생물학적인 이유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 분토와 같이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치당에게는 게르만 민족이 그들의 바알이요 현대인들에게는 자기 열락과 물질의 풍요와 출세욕이 바알입니다.

****** 우리의 바알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무기나 외교에 걸어놓고 바알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안됩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국가도 타락하게 됩니다. 국가들도 지나치게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나가 결국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살려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 자고하여 영혼이 죽지 않게 하시고 죄때문에 이 민족이 멸망을 자초하지 않게 하옵소서. 후손들에게 찬란한 이방문화를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전한 기독교 문화를 상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13: 14)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기들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께 대항한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과 방백이 그들을 구원할 줄 알고 집요하게 달라붙었으나(10) 구원자 여호와와는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왕을 요구한 당시에(삼상 8: 4-9, 15: 22-23, 왕상 15: 25-27)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는 저장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다 갖추어져서 이제 보응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회개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시간을 연기함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증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갑작스럽고도 격렬합니다. 그러나 이 진통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멈춘다면 사산을 하게 되고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모두 위태롭습니다(13).

죽음의 죽음 호세아는 이제 사망 자체의 사망을 약속합니다(고전 15: 15 참고).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음부와 사망으로 부터 건지실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14 하). 13장은 사마리아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보복을 충분히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로 막을 내립니다.

****** 목구멍까지 올라온 죄의 덩어리가 있습니까. 삼키지 말고 입으로 토해 냅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민족이 함께 망합니다. 고통 후에는 해산의 기쁨이 오듯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아픔 뒤에 영혼의 안식이 깃들일 것입니다. 다윗처럼 깊이 통회하고 돌이킵시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죄 때문인 것을 깊이 통찰합시다.

기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웃을 비방한 죄, 책임에 나태한 죄, 음란하고 패역한 죄, 사랑없고 냉랭한 죄, 강박하고 완악한 죄, 좌절하고 낙심한 죄, 모두모두를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을 베푸시사 흰눈처럼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14: 2)

마지막 승리 호세아 14장의 주제는 마지막 승리입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길 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간곡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 만오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6 장에서는 굉장한 회개가 일어났으나 그것이 회개라는 이름 뿐이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 행함을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바른 회개는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1).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정당화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정당성을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더럽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바른 회개는 개별적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2-3). 교만과 위선에 대한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3절은 민족 전체의 죄입니다. 개별적인 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도 짊어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회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없이 회개의 기준도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 식개오는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 했습니다. 남의 것을 절취한 것 있습니까. 이자 합해서 갚으십시오. 한편 강도처럼 무죄를 주장하지 말고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가정에 화목이 깨어졌습니까. 자기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죄를 심상히 여기다가 그 죄에게 삼키울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작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돌아옵니다.

기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치 못하여 하나님을 늘 뵈올 수 없사오니 죄를 미워할 마음 주시어서 토설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옵소서. 민족이 지은 바 우상 섬기는 죄와 사치한 죄, 열락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14: 5)

치유와 사랑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패역을 교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치료하듯 치유해 주십니다. 마귀와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상처입고 할퀴어진 것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주시고 이전 보다 더 큰 새힘을 주십니다. 고쳐 주실 뿐아니라 즐거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케세시’라고 하는데 선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별된 사랑을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금반지는 저절로 굴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의 시 5 - 7은 시중의 시입니다. 각종 나무의 아름다운 이름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곧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오는데 가치있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고 강하게,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신분을 바꿔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니 복중의 복입니다. 복의 원천인 하나님만 모시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행기가 날으는 길이 있고 빠스의 길이 있듯이 사람가는 길을 주셨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전체 예언을 종결짓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지혜있는 사람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 엄마를 찾지 않고 우유병만 찾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 찾아다녀야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찾으므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새힘을 받아 승리하는 나날이 되도록 늘 기도합니다.

기도 무엇이 참 가치인지를 날마다 판단하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바벨론의 부귀를 쫓지말게 하시며 애굽과 앗수르의 영화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와 말씀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